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천관산 역사 '절경' 장흥군 천관산(723m)에 흐드러진 역사가 가을을 반기며 낭창거린다. 가을마다 산을 뒤덮는 역사는 장흥군의 손꼽히는 절경으로 관광객들을 불러모은다. 천관산은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기암괴석과 연대봉에서 구정봉까지 역사가 넘실거리는 10리길이 유명하다. 천관산 역사는 10월 중순부터 말경 사이에 절경을 이루며, 해질 무렵의 역사발 풍경은 다도해의 풍광과 어우러져 매우 아름답다. 역사발 산행은 장천재에서 금강굴~구정봉~역사능선~연대봉~경원석~다시 장천재로 하산하는 원점 회귀형 코스가 일반적이다.

코스피, 6개월만에 3000선 붕괴...외인 매도에 속수무책 장중 2%대 급락에 2950선 후퇴

코스피가 미국발 악재의 영향으로 6개월 만에 3000선을 내주며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의 매도세에 장중 2950선도 무너지는 등 2% 넘게 급락했으나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낙폭을 줄였다.

5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7.01포인트(1.89%)하락한 2962.17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3월24일(종가 2996.35) 이후 처음으로 3000선 아래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01포인트(0.70%) 내린 2998.17에 거래를 시작해 장중 한때 2940.59까지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6211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이 3580억원을, 기관도 2325억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의 매도세를 방어했다.

업종별로는 섬유(1.43%), 유통업(0.69%), 전기가스업(0.32%), 음식료업(0.23%), 보험(0.08%)을 제외한 전 종목이 하락했다. 특히 제약(-7.99%), 은행(-6.51%), 종이목재(-3.29%), 서비스업(-2.76%), 제조업(-2.00%) 등의 하락폭이 컸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내림세로 마감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37% 하락했으며 SK하이닉스도 2.10% 떨어졌다. NAVER(-3.01%), 삼성바이오로직스(-7.20%), LG화학(-2.99%), 카카오(-4.72%), 삼성SDI(-3.82%) 등 주요 대형주가 약세를 보였다. 현대차는 보험으로 마감했다. 이날 섀틀리온은 12.10% 하락하며 시가총액 10위 자리를 기아(-0.64%)에 내주었다.

코스피 급락은 전일 미국 증시가 부채 한도 관련 협상 난항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 파산 이슈도 이어지고 있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중 무역 마찰, 미 부채 한도 협상 이슈 등 여전한 매크로(거시경제) 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우려 속 국제유가가 77달러를 돌파한 것도 투자심리를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중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지만 저가 매수에 유입에 따라 빠르게 되돌림이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83포인트(2.83%)내린 955.37을 기록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부동산 매수 급증

2010년比 작년 외국인 매수액 광주 2.7배·전남 5.5배

은행 대출 규제 등 적용 안돼...투기 등 대책 마련 시급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광주·전남에서도 해마다 늘어, 최근 11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의한 투기·시장 교란 등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에

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기준 광주 지역 건축물(주택·오피스텔·상업·업무용건물)을 매입 규모는 2010년 34억 원·30건이었다.

매입 규모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 지난해 92억 원·5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11년 사이 매수 금액이 2.7배 올랐다. 올해만 해도 7월까지 47억·78억 원에 달해 추이대로라면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외국인의 광주 지역 아파트 매수는 2016년 31호, 2017년 24호, 2018년 34호, 2019년 43호, 2020년 46호 등으로 나타났다. 5년새 4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 규모가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로는 ▲2010년 17억(17건) ▲2011년 50억(43건) ▲2012년 31억(38건) ▲2013년 23억(34건) ▲2014년 36억(40건) ▲2015년 65억(70건) ▲2016년 82억(75건) ▲2017년 66억(62건) ▲2018년 70억(91건) ▲2019년 89억(93건) ▲2020년 94억(122건)으로 확인됐다. 11년 사이 매수 금액

규모가 5.5배 폭증했다. 올해도 7월까지 73억 원(74건)에 이르렀다.

특히 아파트 매수가 급증, 2016년 58호에서 지난해 97호로 5년 새 67.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국내 건축물 매수는 2010년 8321억 원(256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2조5946억 원(8646건)으로 11년새 3.4배 가량 늘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건축물 매수가 집중됐다. 지난해 외국인이 수도권 건물 매수 규모는 2조1897억 원(6468건)으로, 금액 기준 84.39%에 달했다.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도 2016년 3004호에서 2020년 5640호로 5년새 87.7% 증가했다. 매수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0년 338건에서 2020년 6136건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013년 처음 미국인을 추월한 이후 줄곧 1위를 차지했다.

현재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엔 가족 관계 확인,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다. 투기성 매수나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구체적인 조사와 자료 구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오섭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모가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기초적인 현황 파악을 위한 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나기자

경찰 사건 처리기간 매년 길어져...광주경찰청은 가장 짧아

광주 50.8일 최소기간...전남은 62.4일로 전국 평균 수준

올해 광주경찰청의 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전국에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사이 수사 사건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광주가 50.8일로 전국 경찰청 중 가장 짧았다.

그러나 최근 5년새 평균 처리 기간은 길어주는 추세다. 광주는 2017년 37.4일, 2018년 43.7일, 2019년 43.5일, 2020년 48.2일, 올해(1~7월 기준) 50.8일 등으로 4년 새 2주일(13.4일) 가량 늘어났다.

올해 같은 기간 전남은 사건 1건을 처리하는데 62.4일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전국적으로는 광주청과 대구청(54.0일), 경기북부청(56.8일), 울산·경기남부청(57.3일)을 제외한 모든 시·도 경찰청이 두 달 이상 걸렸다. 특히 세종경찰청은 사건 1건당 83.6일이 소요됐다.

사건 처리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부서는 올해 기준 사이버수사(107.9일), 지능수사(93.8일), 경제수사(78.9일), 강력수사(59.0일) 순이었다. 기동취재본부

워킹레일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